

2026.01.13.(화) 증권사리포트 "두산에너지빌리티, 전력 기자재 슈퍼 사이클 도래"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넷마블

신작만 잘 해준다면 올해도 끄떡없을 것

[출처] SK증권 남효지 애널리스트

신작 라인업 본격화와 지급수수료 절감을 통한 2026년 실적 성장 지속 전망

SK증권은 넷마블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며, 2026년에도 신작 출시와 자체 결제 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남효지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9.8% 증가한 95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IP의 글로벌 확장 효과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6년에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등 분기별 2종 이상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 비중을 낮춤으로써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9,000원을 유지했다.





HD현대중공업

4Q25 Preview: 특수선 수주 맞집으로 거듭나는 2026년

[출처]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애널리스트

합병 효과 본격화와 특수선 부문의 공격적인 수주 목표 달성 기대

한국투자증권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5년 4분기 모든 사업 부문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며 턴어라운드를 실현했고, 2026년에는 특수선 중심의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5.2% 증가한 7,2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선 부문의 믹스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2026년에는 필리핀, 태국, 페루 등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주 목표를 전년 성과의 약 3배인 3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상향된 목표주가 730,000원을 제시했다.



현대차

여기서 더 욕심 내봐도 좋다, 최선호주 유지

[출처] 키움증권 신윤철 애널리스트

Physical AI 신사업 구체화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통한 주가 상승 랠리 전망

키움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로보틱스, 로보택시 등 신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며 글로벌 전통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

년 4분기 영업이익이 판매량 역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2.67조원을 기록하겠으나,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 확대와 품목관세 만회 성과가 이익 체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확장 및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진전 가능성을 반영하여 목표 PER을 10배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수적인 사업 계획 달성을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 증명을 기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50,000원을 제시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62,663.6	175,231.2	186,764.4	190,010.7
영업이익	15,126.9	14,239.6	12,439.0	13,038.2
EBITDA	20,073.4	18,526.6	17,652.1	18,747.5
세전이익	17,618.7	17,781.4	15,084.6	15,867.5
순이익	12,272.3	13,229.9	11,362.2	11,887.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1,961.7	12,526.7	10,529.5	11,055.7
EPS(원)	43,589	46,042	40,803	44,259
증감률(% YoY)	63.9	5.6	-11.4	8.5
PER(배)	4.7	4.6	7.3	5.1
PBR(배)	0.60	0.53	0.67	0.47
EV/EBITDA(배)	5.6	7.6	9.8	10.0
영업이익률(%)	9.3	8.1	6.7	6.9
ROE(%)	13.7	12.4	9.4	9.4
순차입금비율(%)	52.8	63.2	69.4	63.3





디아이

2026년 영업이익 700억원 가시성 확대 국면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HBM4 공정 고도화에 따른 검사 장비 수요 급증 및 마진 레버리지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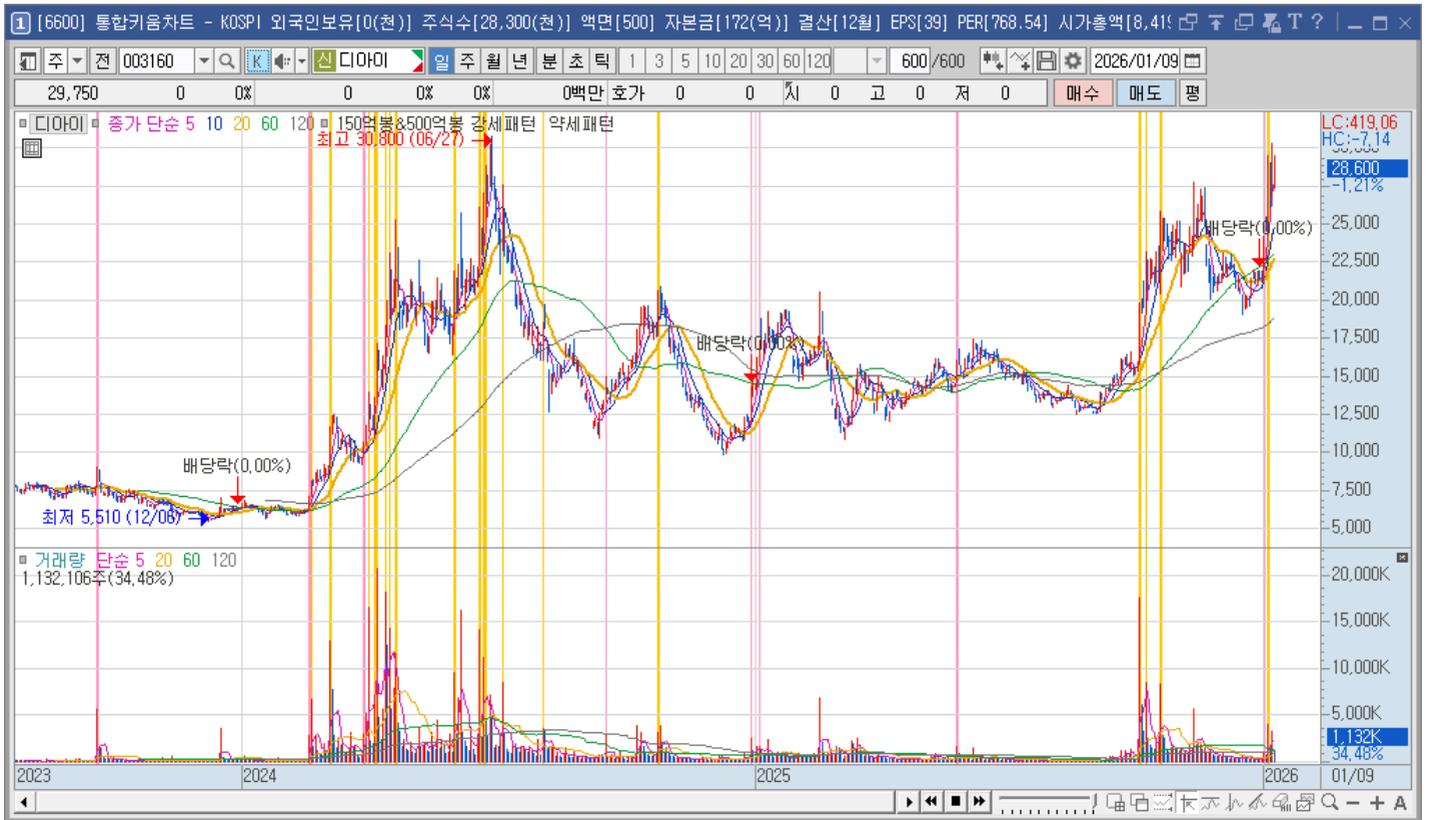
하나증권은 디아이에 대해 HBM4 시대 진입으로 인한 웨이퍼 번인 및 코어 테스트의 중요도 상승과 자회사 디지털프론티어의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태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58.9% 증가한 357억원을 기록하고, 2026년에는 원가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마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 704억원을 달성하며 이익률이 한 단계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적층 HBM 환경의 발열 문제에 대응하는 수냉식 열 관리 솔루션 등 독보적인 기술력이 퍼스트벤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보유를 제시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27	231	215	214
영업이익	16	11	6	3
세전이익	18	15	4	1
순이익	15	15	2	3
EPS	488	466	111	39
증감율	180.5	(4.5)	(76.2)	(64.9)
PER	19.2	10.2	56.8	371.3
PBR	1.9	0.8	1.1	2.6
EV/EBITDA	14.1	10.0	18.3	53.2
ROE	10.9	9.7	2.1	0.7
BPS	5,002	5,588	5,584	5,657
DPS	200	100	100	100





두산에너지빌리티

전력 기자재 슈퍼 사이클 도래

[출처] 미래에셋증권 김태형 애널리스트

글로벌 원전 및 가스터빈 수요 폭발에 따른 대규모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 기대

미래에셋증권은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대해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형원전, SMR, 가스터빈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대형원전 79.4조원, SMR 20조원, 가스터빈 53.1조원의 누적 수주가 기대되며, 특히 원스탑 생산 체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기자재 우선 공급권이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가는 향후 체결될 방대한 수주를 선반영하여 Peer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나, 수주 금액 확대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원)	17,590	16,233	16,800	18,675	20,610
영업이익 (십억원)	1,467	1,018	878	1,408	1,895
영업이익률 (%)	8.3	6.3	5.2	7.5	9.2
순이익 (십억원)	56	111	112	638	909
EPS (원)	87	174	174	997	1,419
ROE (%)	0.8	1.5	1.5	7.9	10.2
P/E (배)	183.0	100.9	432.0	84.5	59.3
P/B (배)	1.4	1.5	6.2	6.4	5.8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두산에너지빌리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